

# 장성군, 민·관·전문가 손잡고 '1000만 관광시대' 활짝 연다

### 장성관광 활성화 포럼·현장 답사...1박 2일간 발전방안 모색 주민 주도형 콘텐츠, 27일 상무평화공원서 '어울림 음악회'

장성군이 민·관·전문가들과 손잡고 민선 8기 김한중 군수의 공약인 '1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겨 활짝 열기 위해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장성관광 활성화 포럼'을 열고, 장성관광의 현주소와 장단점, 마케팅 전략 등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지방발전연구원 김영미 이사장(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이 진행을 맡았다. 포럼에는 관련단체 소속 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방문위원회 관계자 등 다수의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18~19일 이틀간 백양사를 비롯해 장성호 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

산 필암서원, 홍길동 테마파크, 상무평화공원을 답사하고 관광지 활성화 극대화 방안에 대해 열린 토의를 했다.

이상태 넥스트스토리 이사장은 '해남 관광마케팅과 미남축제 성공비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관광산업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상생방안과 관광상품 유통 솔루션을 제시했다.

임채성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방문의회 팀장은 "장성군에 체류형 야간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며 "백양사 사찰음식을 활용한 미식관광 홍보 마케팅, 홍길동 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와 관광상품, 숙박·쇼핑시설,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과 김

지효 전문위원은 "부족한 콘텐츠와 편의시설 해결을 위해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장성호 관광지 전방대 활용 방안'을 비롯해 '시티투어 운영 등 지역특화 여행상품 개발', '2030관광자원개발 구상', '장성문화재단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포럼은 장성관광의 현주소와 장단점, 마케팅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동참이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장성군에선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광두레 등 관광사업 참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무평화공원에 음악분수 설치를 기념한 '어울림 음악회'가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18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린 '장성관광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이날 행사에선 색소폰·통기타·삼계고등학교 관악대 공연, 토탈 댄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

와 함께 먹거리 부스, 베틀시장이 운영된다. 장성=김수권기자



### '힐링과 감성 있는 목공을 만나다' 전국 교원연수 성료 구례군, 목공 교육 지식 습득으로 교과 지도 역량 강화

구례군은 구례목재체험문화체험장에서 전국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8월 16일 ~ 17일 1박 2일간의 교육 과정으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힐링과 감성이 있는 목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목재를 통한 오감만족을 체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 목공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일차 교육은 목공 기초 이론과 나무를 다루는 이야기, 다양한 쓰임과 활용법, 현지도의 이해와 짜맞춤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2일차 교육은 가공된 목재에 색채와 디자인을 그려보는 보테니컬 기법으로 목재에 감성을 입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리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여 구례의 인물과 역사 알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역사와 미래 숲 가치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과 간담회 가져

윤병태 나주시장이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과 지역 청년농업인 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청년농업인이 생산·가공한 농산물 품목별 소개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정책 지원 건의 등 자유로운 대화 자리를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농업단체인 청년4-H연합

회 최창순 회장, 김종윤 전)회장 등 청년 농업인 10명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이 배석했다.

최창순 청년4-H연합회장과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농촌 인력난, 영농 기반 조성사업,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확대 등을 윤 시장에게 건의했다.

국승용 실장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경력, 기반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눠 맞춤형 정책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곡성군, 찾아가는 코로나19 일상 방역 릴레이 캠페인 실시

곡성군이 18일 결면과 오산면 소재에 위치한 마을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일상 방역 수칙 준수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곡성군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19 방역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개인 방역 수칙과 6대 생활 방역 수칙 생활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곡성군 보건의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곡성군 결면 소재 경로당 2개소, 오산면 소재 경로당 2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일상 방역 홍보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캠페인을 통해 6대 생활 방역 수칙 (▲예방접종 완료하기,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30초 비누로 손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무르기) 등을 주민에게 안내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화순군, 화순스포츠클럽 '여성 축구반' 회원 모집

### 신착순 25명 회원 모집...9월부터

화순군이 화순스포츠클럽 여성 축구반을 신규 개설하고 회원 모집을 한다.

화순스포츠클럽 여성 축구반은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보조구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비는 월 2만 원으로, 화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하니움문화스포츠

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화순스포츠클럽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wasunsc>)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현재 화순스포츠클럽 유소년축구반, 복싱과 탁구반이 운영 중이다. 수강료는 3~4만 원 수준이고 주 2~3회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내려 받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화순스포츠클럽(061-374-7600)에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	